

최종편집 : 2021-10-15 21:57 (금)

로그인 회원가입 BBS불교방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세검색



전체 경제 정치 사회 문화·스포츠 불교 국제 전국 | BBS 인터뷰 BBS 칼럼 BBS 취재수첩 BBS PLAZA 인사/부고



홈 > 불교

[포토뉴스] 나흘째 맞은 삼보사찰 천리순례...해발 1,000m 고지로

박준상 기자 | 입력 2021.10.04 08:53 | 수정 2021.10.04 11:01 | 댓글 0



어스름한 새벽, 상월선원 만행결사 108 천리순례단이 천은사로 향하고 있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단의 사흘차 순례가 지리산 천년고찰 화엄사에서 지리산 고갯길을 따라 시암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화엄사 뜰에 마련된 숙영지에서 간단한 체조를 마친 순례단은 화엄사의 주요 말사인 천은사를 방문해 부처님전에 참배했습니다.

최신뉴스

- 불교 | 백양사, 독거노인세대에 연인 도시락 680개 기탁
- 경제 | 아파트값 뛰자 오피스텔 가격도 초강세...매매 전...
- 정치 | 문 대통령, 日 기사다 총리와 첫 통화..."강제징용 ...
- 사회 |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전 5개월 성남시 고문변호...
- 사회 | 검찰, '대장동 개발 의혹' 성남시청 11시간 압수수색

포토뉴스



인기뉴스

- 1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마지막 거리두기...
- 2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나온 '광화대군'
- 3 사적모임 인원 완화...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
- 4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부울경 토론회 + 이준석의 특
- 5 [코로나19]부산 18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10명, 다중이용



상월선원 회주 자승스님과 순례단이 천은사 극락보전을 향해 참배를 올리고 있다.



상월선원 만행렬사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천은사 경내에서 반야심경을 봉독하는 모습.

순례단은 천은사에서 지리산 국립공원 도로를 따라 해발 958미터에 위치한 시암재까지 이동하고, 시암재 휴게소에 마련된 숙영지에서 사흘째 일정을 매듭지를 예정입니다.



상월선원 천리순례단 행렬이 지리산 고갯길을 오르는 모습

6 [코로나19] 18일부터 '사적 모임' 수도권 최대 8명, 비수



7 울산 코로나19 거리두기 3단계 유지.. 식당·카페 밤 12시까지 운영.. 가을 행락철 특별방역 추진

8 [속보] 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



BBS칼럼

전경윤의 '세상살이'

전영신의 '사산'

신두식의 '공감노트'

배재수의 '크로기'

이현구의 '스윗 스팟'

선임기자 칼럼 NEW

월 1만원 이상, 방송포교후원功德주 모임

만공회

가입문의 1855-3000

ARS 후원 060-800-8000
(한 통화 5천원)



고갯길을 오르다 맞은 휴식 시간, 스님이 신발을 벗고 잠시 쉬고 있는 모습



상월선원 천리순례단이 숙영지인 시암재까지 지리산 고갯길을 오르고 있다



박준상 기자 tree@bbsi.co.kr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추천
0



반대
0

당신만안본뉴스

이낙연 전 대표 "결선투표 필요, 대장동 의혹에 대한 ...
'큰스님의 아멘' 각계 반향... "벽을 허무는 큰 울림"
[교육기획] "선생님! 고맙습니다"...경기 화성 남양고
[코로나19] 서울 노원구 병원 관련 28명 확진...병원...
국민의힘, 오늘 광주에서 첫 TV토론..5,18묘역 참배도
문 대통령 "'청정수소 선도국가' 강력 추진"
윤건영 "이준석 대표, 여당(이재명-이낙연) 이간질 그...

이낙연 전 대표 "결선투표 필요, 대장동 의
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지켜봐야 한다는

기사댓글 0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 400

주요기사



백양사, 독거노인세대에 연
앞 도시락 680개 기탁



아파트값 뛰자 오피스텔 가
격도 초강세...매매·전세



문 대통령, 日 기사다 총리
와 첫 통화..."강제징용 문제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전 5
개월 성남시 고문변호사 활



검찰, '대장동 개발 의혹'성
남시청 11시간 압수수색



"문 대통령 기사다 일본 총
리, 첫 통화"



매체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BBS불교방송(제)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 대표전화 : 02-705-5114 | 팩스 : 02-705-5229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재수

제호 : BBS NEWS | 등록번호 : 서울 아 01259 | 등록일 : 2010-06-03 | 발행일 : 2001-09-01

발행인 : 박형수(종하) | 편집인 : 전경윤

BBS NEWS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BBS 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bbsi.co.kr

POWERED BY 